



**Q. 여러 주민 분들의 의견을 모으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A. 삽시도의 3대 보물, 면삼지와 물망터, 황금곰솔이 있는 둘레길을 차별화된 명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중 면삼지라는 곳은 매우 독특해 밀של물에 따라 삽시도와 분리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사이에 출렁다리를 연결해서 둘레길을 찾는 분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근처의 늪지대에 꽃길을 조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꽃 축제 등을 연다면 둘레길과 연계하여 하나의 관광코스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착장 주변의 비어 있는 건물에 삽시도의 특산품을 소개하고 맛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면 먹거리 고민도 해소하고 관광객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층에서 삽시도의 특산품을 구매하고 위층으로 가져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이렇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아래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 삽시도

**Q. 삽시도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삽시도에는 500명이 채 안 되는 주민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마을은 작지만 무척이나 단합이 잘 되고 정이 많은 섬입니다. 제일 유명한 특산품으로는 바지락이 있는데요. 삽시도 바지락의 특징은 푹 끓였을 때 사골을 우린 듯 뽀얀 국물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삽시도에서 바지락을 한 번 사 가신 분들은 그 깊은 맛에 매료되어 1년 내내 저희 바지락을 찾으십니다. 일본으로 저희 바지락을 수출하기도 했답니다. 풍경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숙소도 잘 갖춰져 있으니 꼭 한번 놀러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삽시도에는 언제 방문하는 편이 제일 좋을까요?**

A. 게나 낙지를 잡는 해루질, 낚시 등을 체험해보실 수 있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오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8월경, 너무 더워지기 시작하면 잠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지만 해수욕만 즐기셔도 충분한 때니 이쯤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튼튼한 관광 인프라를 다져  
'같이 더불어 잘 사는 마을'로의  
변화를 꾀하다

**Q. 섬에 어떤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삽시도뿐 아니고 모든 유인섬의 문제점이기도 할 텐데요. 정착하고 싶은 마음에 섬을 찾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듯합니다.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잘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신경 쓰는 섬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마을 사람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특성화 사업 참여를 통해 섬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A.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튼튼한 관광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잘 사는 마을,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나요?**

A. 마을 분들이 모두 섬에 큰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특산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고 있고, 관광객 분들이 오시면 좋은 점이나 아쉬운 점을 묻기도 하면서 삽시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구상이 됐는데 마을 주민들이 말주변도 없고 서류 준비 같은 부분이 서투릅니다. 지금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많은 정보를 가진 한국섬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삽시도는 소소한 재미가 있는 곳이지만, 2025년 정도만 되어도 종일 즐겁게 놀고 가실 수 있는 섬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민 모두 한마음으로 가꾸는 곳, 삽시도에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



황금곰솔



면삼지

진너머 해수욕장

